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담양 곳곳 누빈다



담양군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담양시외투어 버스노선 확대 운영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친환경 저상 전기 버스를 시범 운영해오던 담양시외투어는 이번 4월부터 가시문화코스과 담양호코스가 추가된 3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

제1코스(시내순환 방면)는 한국 대나무박물관, 죽녹원을 경유하는 기존 노선에 담빛수영장 개장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해 담양읍 소재 야파트와 담양국민체육센터 코스가 추가됨으로써 수영장 셔틀버스로서의 기능도 하게 된다

제2코스(가시문화 방면)는 창평

담양시외투어 버스노선 3개 추가 확대 운행 “대기오염 저감·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 기대”

슬로시티, 한국가사문학관, 소쇄원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그동안 담양읍에서 소쇄원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없었던 불편함을 개선코자 했다. 제3코스(담양호 방면)는 죽녹원과 용마루길을 거치는 코스로 담양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기대된다.

기회코스는 탑승객 10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관내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수요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코스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기회코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단체 탑승객의

요청 시 광주송정역 등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순환코스(제1~3코스)의 버스 이용요금은 성인 2천원, 기획코스는 유료 관광지 2개소 입장료를 포함해 성인 1인기준 1만2천원이다. 청소년·어린이·경로지는 순환코스 1천원 기획코스 6천원이며, 장애인·유공자·미취학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덜고 정겨움이 있는 “강진이 좋아요”

주한 외국인 70명 1박2일 푸소체험

강진군에 지난 7일 70명의 주한 외국인들이 1박 2일로 푸소체험을 왔다.

교향화생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주한 외국인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푸소체험을 신청했다. 고려청자박물관과 민화뮤지엄을 관람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고 농가에서 지면서 한국가정과 음식을 느끼는 푸소체험을 했다.

푸소체험은 강진군의 역점사업으로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다. 농촌집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농가와 함께 생활하며 농촌민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철량면에 있는 김정숙 푸소농가는 “외국인들도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언어는 달라도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면서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에 흡족해했다.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독일인 칼리안퍼씨는 “함께 만든 음식도



입맛에 맞고 계란꾸러미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부 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푸소체험은 4월 현재 학생 7천 200명을 포함해 9천500명의 예약이 이뤄져 주로 수확여행과 체험학습으로 많이 찾았으나 이제는 가족단위,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푸소체험을 신청하고 있다.

이준법 강진군 문화관광과장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유럽과 일본이 하고 있는 농가체험이 푸소체험으로 강진에서 자리잡고 있다”면서 “푸소농가는 가족이 왔다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많은 분들께 고항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5월 장미여왕이 나가신다”...곡성 세계장미축제

곡성군은 벚꽃과 철쭉이 물러간 5월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미여왕을 보러온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봄장미의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마지막 상춘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라남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1004개 품종의 서유럽의 색깔이 화려하고 도발적인 장미꽃의 자태와 매혹의 장미향을 뿜내는 1만 2천여 평의 장미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에는 ‘향기, 사랑, 꿈’의 주제로 ‘두개의 사랑, 수억만 송이 세계명품 장미향 속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낭만적인 장미꽃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흥겹고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19일 오후 5시, 1004종의 서유럽 장미가 펼쳐진 장미공원에서 중세 유럽 의상을 입고, 가면을 쓴 지역 고등학생들이 라퍼 커션 퍼레이드와 플래시몹 세레모니로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에는 곡성이 최초로 유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광주·전남권 최초로 공식 미식축구 경기를 유치하여 축제기간 중 ‘로즈볼 미식축구’ 경기를 운영



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1004개 품종 장미향 뽐내 로즈컬러런·미식축구 연구전 등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 예정

하여, 개막 첫날 우리나라 미식축구 사회인리그(KAFA) 경기를 진행하고, 5월 26일 낮 12시부터는 세기의 라이벌전 ‘연구전’의 스포츠 대항 미식축구 경기를 펼쳐 ‘로즈볼 미식축구’의 메인행사를 장식한다.

또한, 이미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하여 젊은 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컬러런 색축제가 호남권 최초로 곡성에서 진행된다.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로즈 컬러런’ 색축제는 곡성읍내와 축제장 곳곳에서 빨간, 노란, 파란색 파우더가 공중에서 흩날리며 장미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펼쳐낸다.

전국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하여 신나는 DJ박스 음악과 함께하며, 레

이스가 끝나는 축제장에서는 유명 보컬그룹 ‘장미여왕’의 스탠딩 무대와 초청작 대형 뮤지컬 ‘캣츠’ 바가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간다.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장미꽃의 자태와 꽃향기를 온전히 느끼며 인생샷을 건지고 싶은 관광객들의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었다.

연인과 함께라면 유리온상이 있는 로즈카페 ‘공무도화’를 방문하여 장미공원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바라보며 허브, 종려죽 등 관엽식물로 예쁘게 꾸며낸 웨딩이치와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고, 친구, 가족과 함께라면 잔디광장으로 나와 피크닉존과 웨딩이치에서 봄소풍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

다. 귀여운 인디언 텐트와 빈티지한 꽃병 소품을 활용하여 지난해 SNS 상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곡성 장미축제 웨딩포토존에 이어서 올해에도 5월중 가장 핫한 장소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중 주말과 휴일 3시부터는 개막식에 첫 모습을 드러낸 중세유럽 가면 퍼레이드를 계속하여 관광객들과 흥겨운 자리를 마련한다. 화려한 가면과 중세 유럽풍 의상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수준 높은 길거리광장 공연이 주말과 휴일 2회씩 만나볼 수 있으며, 매일 저녁에는 장미무대에서 ‘로즈가든 음악회’가 열려 관광객들과 호흡을 함께한다. 27일 저녁 5시부터 굿바이 공연이 진행되어 ‘모모랜드’, ‘저스트 걸크’, ‘신현희와 김투트’ 등 대형 가수들의 특별무대와 함께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곡성의 대표 축제로서 지난해 축제기간에 27만 1,618명이 방문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관람객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높은 점유율과 높은 만족도 평가, 5월 장미축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젊은 연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로도 인기가 높다. 인파가 될 뻔하는 이른 아침과 저녁시간에 방문하는 것도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꿀팁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귀농·귀촌인 친인척 및 지인 영암방문

영암군은 지역 귀농귀촌인의 친인척 및 지인을 초청하여 지역의 귀농귀촌 사례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들이 향후 귀농귀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 될 행사를 추진하였다.

지난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2018 영암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4월7일에서 4월8일까지 1박2일 동안 영암군 귀농귀촌인 과 그 친인척 및 지인 40여명을 모시고 왕인문화축제장 관람, 딸기수확체험, 지역명소탐방 등의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선배 귀농인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에 한 참석자는 “가족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며, 아시는 분들께 영암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박지연 연구개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결심이 있는 친인척 및 지인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효과 있을 것이며, 이는 날로 심화되는 지역 인구감소 해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